

위암환자에서 대장 신생물의 유병율

가천의대 내과

권광안*, 김유경, 임도윤, 정문기, 박동균, 권오상, 김신숙, 김연석, 권소영, 구양서, 최덕주, 김주현

목적: 위암환자에서 대장 신생물의 발생 빈도와 관련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1999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위암으로 진단받은 1302명의 환자 중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받은 115명을 대상으로 대장신생물의 유병율을 조사하였다. 대조군으로는 같은 기간 무증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받은 151명으로 하였다. 두 그룹간의 임상적 특성과 대장신생물의 유병율을 후향적으로 비교하였다. **결과:** 위암 환자의 평균 나이는 57세이었고 69.6%가 남성이었다. 대조군의 평균연령은 49세이었고, 60.3%가 남성이었다. 위암 환자군에서 대장선종의 유병율은 40.9%, 대장암의 유병율은 1.7%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각각 16.6%와 2.0%로 대장 선종의 유병율은 위암환자군에서 더 높았으나 ($p < 0.05$, Odds ratio: 3.48), 대장암의 유병율은 두그룹간에 차이가 없었다($p = 0.62$). 진행성 선종의 유병율도 각각 5.2%와 2.6%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22$). 조기위암 환자군과 진행성위암 환자군간의 대장 선종의 유병율은 각각 40%와 41.3%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3$). 위암 환자군에서 T병기에 따른 대장 선종의 유병율은 각각 T1 40%, T2 42.9%, T3 41.9%와 T4 25.7%이었다($p = 0.92$). N병기에 따른 대장 선종의 유병율은 N0 40%, N1 40%, N2 60%와 N3 20% 이었다($p = 0.25$). Lauren 분류에 의한 대장 선종의 비율은 장형이 45.6%, 미만형이 30.6%였다. UICC 병기분류에 의한 대장 선종의 비율은 Ia 42%, Ib 29%, II 50%, IIIa 44%, IIIb 60%와 IV 23.1% 이었다($p = 0.45$). **결론:** 위암환자군에서 대장 신생물의 유병율은 대조군 보다 높았다. 위암환자에서 대장 선종의 위험인자에 대한 추가적인 전향적인 대조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위암환자의 임상 특징 고찰 및 치료 동향

서지현*, 김나영[†], 이동호[†], 김진욱[†], 황진혁[†], 박영수[†], 김선미, 박관영, 정현채, 송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간연구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

목적: 위암은 우리나라 악성종양중 남자에서는 가장 발생률이 높고 여자에서도 암 발생률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무증상인에서의 상부내시경검사의 보편화와 건강검진 빈도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조기위암의 진단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진단된 위암 환자의 임상적 특징을 고찰하고 이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방법: 본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3년 5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진단된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위암 진단경로, 조기위암 진단률, 병기에 따른 수술방법을 포함한 전반적 임상양상을 알아보았다.

성적: 1년 동안 진단된 위암환자는 총 231명이었으며 이중 조기위암은 97명(42.0%), 조기위암과 진행성위암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3명(1.3%), 그리고 나머지 131명(56.7%)에서 진행성위암으로 진단되었다. 몇가지 주요 변화를 보면 1) 전체위암 환자중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경우는 43명(18.6%) 이었고 건강검진에서 진단된 43명중 조기위암은 34명, 진행성위암은 9명으로 조기위암 비율이 79.1%로 높았으나, 건강검진이 아닌 경로로 진단된 위암 환자 188명중에서는 33.5%인 63명에서만 조기위암으로 진단되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2) 전체 위암환자 231명중 근치적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158명(68.4%)이었고 이중 11명(7.0%)의 조기위암 환자에서는 위절막절제술로 치유되었다. 4) 근치적 위절제 수술 방법중 최근 시술되고 있는 laparoscopic-assisted distal gastrectomy(LADG)를 시행받은 경우는 67명(42.4%)이었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술받은 조기위암환자 85명중 LADG 수술이 이뤄진 경우는 60명(70.6%)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건강검진 증가로 조기위암의 진단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기위암환자에서는 laparoscopic-assisted distal gastrectomy를 개복술보다 많이 시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예후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